

상대를 이기고 핵군세를 나눈 게
설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
만화로 전면 핵전쟁 이후를 '재
미있게' 그린 책이 출간됐다.

부산 데레사여중 미술교사인
신종봉(38)씨가 펴낸 '핵충이 나



타났다'는 전면 핵전쟁으로 인류
가 멸망한 후 지구에 나타난 새
로운 생물 '핵충'(핵벌레)의 이
야기를 통해 보는 이에게 웃음과
함께 쭈뼛한 공포감을 던져준다.

서문격인 '핵충이 호모사피엔

핵전쟁뒤 쭈뼛한 공포 그려

미술교사 신종봉씨, 만화 '핵충이 나타났다' 펴내

스에게 보내는 편지'에서 '핵충'
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한다. "우
리 핵충은 중금속을 핵분열시켜
열량을 섭취합니다. 우리들의 위
장은 금속이면 몽땅 핵분열시킬
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같은 값이
면 납덩이보다는 우라늄이나 플
루토늄이 몇배나 맛이 있지요."
'핵충'들이 식량인 핵물질을 찾
아 헤매는 이야기를 다섯편의 극
화로 엮었다. 이들이 가장 무서

워하는 것은 민들레 씨앗, 메뚜
기 등 생명체다. '비핵지대 오세
아니아를 탈출한 '핵충'들이 찾
아낸 '핵토피아'는 한반도였다는
것이 줄거리다.

신씨는 '지은이의 말'에서 "10
여년 전 한국인 피폭자의 고장인
합천에서 첫 교편을 잡은 것이
핵문제에 관심갖는 계기가 되었
다"며 "문명발전이란 미명 아래
자연 구조를 흐트러뜨리는 위험



핵충이
나타났다

을 지적하고 싶었다"고 말했다(도
서관 친구·값 2천원).